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10월 18일(일) 제1608호



2027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모집

10월 25일까지
'온라인 교사지원서' 제출

2027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10월 17일(토)부터 25일(일)까지 모집한다. 현재 차세대 교사 195명, 사랑부 교사 40명 이 더 필요하다.

2027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소속 공동체 담당목사에게 추천을 요청한 다음,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또는 하단 QR 코드에서 '온라인 교사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 세례 교인, 공동체 순예배 참석 중인 성도가 대상이다.

2027년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사명교육'도 한다. 목요반은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 토요반은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교사사명교육은 본부교육 4주, 부서교육 4주로 총 8주 동안 이어진다. 교사사명교육을 수료하면 OBC 2학점을 부여한다. 사랑부 교사교육은 장애인사역본부에서 별도로 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서빙고 사랑부 02-3215-3263, 양재 및 도곡 02-570-7436, 양재 사랑부 02-570-7438

/ 홍하영 기자



의사 맞춤형도집회 '러브터치'

11월 2일 오후 6시 50분 서빙고 본당

의사 맞춤형도집회 '러브터치'가 열린다. 11월 2일(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환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의사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장(場)이다.

의사 맞춤형도집회 '러브터치'에서는 저녁 만찬, 공연, 메시지, 축복의 시간 등이 이어진다. 방송인 김원희가 사회를 보고, 가수 범키, 가스펠 보컬팀 크로스,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박진아가 공연한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전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구글폼(하단 QR 코드 참고)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에 초청 대상자를 최대 5명 입력할 수 있다. 더 많은 인원을 초청하려면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400명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1인 당 5만 원(저녁 만찬 포함). 문의: 02-570-7110 / 홍하영 기자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AI 시대의 제자도'

10월 27~31일 서빙고 본당, 온라인, 양재 기쁨홀
주제 강의, 특별 강의, 설문조사 분석, 공모전 시상, 패널토의 등

2026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Onnuri Future&Family Celebration)가 'AI 시대의 제자도'를 주제로 막 오른다. 10월 27일(화)부터 31일(토)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상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미래성장분과위원회는 10월 27일(화)부터 31일(토)까지를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주간'으로 정하고, 주제 강의, 특별 강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대학청년부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 패널토의 등을 이어간다.

10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

교회 본당에서는 이인용 장로가 '세상 가운데 제자로의 삶'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날 화요 성령집회는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참가로 대체한다. 공동체 대표 장로, 총무, 순장 등 리더십 참여를 권장한다.

10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는 온라인 특강을 한다. 매일 오후 7시 30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한다. 28일(수) 박태성 장로와 김영옥 장로 '제자도의 이해와 실천', 29일(목) 김홍주 목사 '로잔운동에서의 제자도', 30일(금) 김경훈 집사 'AI에 대한 성경적 관점 및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특강한다.

10월 31일(토)에는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AI 시대, 교회의 책무와 제자도의 실천'을 주제로 본행사가 열린다. 주제 강의, 설문 결과 발표, 대학청년부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 패널 토의 등을 한다. 주제 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박태성 장로가 한다. 패널 토의에서는 이인용 장로가 사회를 보고, 이재훈 위임목사, 이서진 목사, 유혁 집사, 하선희 집사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2026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본 행사에 올 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양재 환승주차장과 일동제약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 참가자 자녀를 위한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양재 온누리홀과 꿈아이홀에서 김지연 집사가 '미디어 리터러시(매스미디어에 담긴 잘못된 생각치관 읽어내기 and 바로잡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3215-32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정기후원 행사

1,708명 동참, 3억 5천6백만 원 약정

2026년 CGN 정기후원 행사에 1,708명이 동참해 3억 5천6백만 원을 약정했다(10월 14일 기준). 후원금은 CGN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장비 운영, 선교사 위성 인터넷 지원 등 미디어 선교 사역에 사용된다.

CGN은 지난 9월 19일(토)~20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CGN 후원, 선교지와 복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세요!'를 주제로 정기후원 약정 행사를 개최했다. 10월과 11월에는 협력 교회와 함께 포토월, 사진관, K-CCM 오디션 '힐링보이스' 방청 이벤트 등의 후원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기후원 또는 드림온브릿지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02-796-2243)나 CGN 웹사이트(www.cgnkorea.net),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 박지혜 기자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

러브소나타 이와테 10월 21~22일 토사이 클래식홀

36번째 러브소나타 이와테가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 (요 7:38)을 주제로 10월 21(수)과 22일(목) 토사이 클래식홀에서 막 오른다. 한국 참가자와 스태프 40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0월 21일(수)에는 오전 9시 30분 세미나와 저녁 7시 가스펠 나이트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김경훈 집사가 강의하고, 가스펠 나이트에서는 요시오카 케이조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기타리스트 이구사 세이지는 특별 찬양을 한다.

10월 22일(목) 오전 11시에는 메트로폴리탄

홀에서 리더십 포럼이, 오후 7시에는 러브소나타 메인 집회가 이어진다. 리더십 포럼에서는 이용만 장로와 와카이 카즈오 목사가 강의하고, 러브소나타 메인 집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기타리스트 이구사 세이지, 가스펠 보컬밴드 CRUX, 가수 및 배우 이지훈, 소프라노 김영미, 가스펠 싱어 지미선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온누리교회 및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집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문의: 02-570-7415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해같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교회

사사기 5:1~12, 31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사사기> 5장 31절에서 온누리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31절).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찬송으로 올려 드린 기록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드보라의 마지막 기도를 온누리교회의 기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해는 깊은 밤을 지나서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해가 힘차게 솟아오름과 같게 하소서”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 아셀의 시대에 큰길은 비었고 여행자들은 구불구불한 길로 다녔다네. 결국 나 드보라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마을 주민들이 없었다네. 그들이 새로운 이방 신들을 선택했고 그때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렀다네. 이스라엘 군인 4만 명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가 보였던가?”(6~8절).

큰길이 텅 비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순례하는 사람도 큰길로 다니지 못하고, 숲 사이 구불구불한 샛길로 숨어 다닌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벽 없는 마을의 농부들은 밭을 두고 떠났습니다. 군인 4만 명 가운데 창과 방패를 가진 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폐해지고, 무력해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왜 어두운 사회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새로운 이방 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방 신’이라는 표현이 이목을 끄니다. 우상숭배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문화를 보면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겉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상숭배는 시대마다 모양만 새롭게 할 뿐,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깊은 어둠은 가나안의 철병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우상숭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환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우상숭배에서 시작됩니다. 그 어둠 한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둬 외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드보라여! 깨어나거라. 깨어나서 노래하여라! 일어나거라, 바락이여! 네 포로를 사로잡아라! 아비노암의 아들이여!”(12절).

“깨어나거라”라고 네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탄하고 한가한 시대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드보라도 자신이 사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깨어나거라”며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깊고 어두운 밤에 사람을 깨워 일으키십니다. 아침 해가 어둠을 밀어내며 떠오르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역사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깨워서, 때로는 한 교회를 깨워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역사의 어두운 배경과 함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는 교회를 통해 어둠을 뚫고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어둠을 깨고 일어나 해처럼 솟아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회복이 되지 않는 몸, 앞이 보이지 않는 재정 상황,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가정 때문에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해가 힘 있게 솟아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지원하는 이들이 넘쳐난다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째, 언제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지원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지원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2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하라!”(9절).

드보라와 바락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 역지로 끌려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 나가자!”라고 했을 때 지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원이 아니라 자원함입니다. 지도자가 앞서갈 때 자원함으로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누리교회 41년 역사에는 언제나 앞서가는 지도

자들이 있었고, 자원함으로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비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비전에도 순종하며 자원했던 역사가 바로 온누리교회의 역사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헌신된 지파를 거명합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그랬습니다. 반면 싸움에 나오지 않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양 우리 주변에서 머뭇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머무르고 있었고, 아셀 지파는 해변에 남아 부둣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지파들이 있는 반면, 머뭇거리며 생각만 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그 지파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파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즐거이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리며 심사숙고만 하는 이들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자원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해같이 솟아오르는 교회입니다.

끝까지 주의 원수들을 대적한다

둘째, 끝까지 주의 원수들을 대적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31절).

‘우리 원수’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원수’라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힘이 무너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의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123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일과 주께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 그리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스르려고 꾸미는 모든 악한 계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께 대항해 일어나는 모든 세력, 모든 악한 계락을 무너뜨려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은 때로 사람의 얼굴을 하기도 하고, 법과 제도와 문화의 얼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움직이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둠을 뚫고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인생 그리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주의 말씀을 거스르고 꾸미는 악한 계략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교회를 존재할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슬람의 견고한 진은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회도 안전한 환경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묘한 신학과 사상으로 공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하나님의 원수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수와 싸우는 무기는 다릅니다. 드보라 시대는 실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신 무기는 다릅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계 1:16).

이 한 구절에 해가 나오고, 검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사사기>의 싸움은 실제 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의 검으로 싸웁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권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 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칼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옥문을 지나 풀려나왔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 자신을 신처럼 높이던 헤롯은 주의 사자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대적하는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후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는 성경을 불태우고, 예배당을 허물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에 가했던 박해 중에 가장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의 종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주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소서”라는 드보라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해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드보라는 “그 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해처럼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그 시대에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 해를 떠올리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태양을 떠올리듯이 그 백성들도 어두운 시대에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면 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주의 대적들을 망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같이 떠오르게 된다

셋째,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해는 떠오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날마다 같은 길을 기뻐하며 달려 나오듯 떠오릅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아침 해를 두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잠 4:18~19).

의인의 길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점점 밝아져 동틀 무렵 비추는 해와 같이 비추어져 환한 대낮같이 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41주년을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배소교회처럼 수고와 인내와 바른 교리를 다 갖춘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강조했던 큐티, 일대일제 자양육 등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법과 제도와 율법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의 기도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편지로 읽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교회만이 시대의 어둠과 위협 앞에서도 해처럼 솟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떠오르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처럼 떠오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비 갠 뒤의 햇살이 땅에 새 싹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삼하 23:3~4).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태어날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을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

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필적필적 될 것이다”(말 4:2).

<누가복음>에서 사가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태양이 높은 곳에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취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눅 1:78~79).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왜 태양이 떠오르는 비유를 자주 썼을까요? 그것은 드보라가 기도했고, <말라기>가 약속한 그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중심에 있는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아침 해가 떠오르듯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면, 해가 힘 있게 솟아오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마 13:43).

해같이 떠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은 해같이 떠오르는 인생 그리고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둠을 뚫고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인생 그리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1분 안에 생명을 옹호하는 방법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 “프로라이프 진영은 단지 자기들의 종교적 견해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낙태를 반대할 만한 좋은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을 종교적 이데올로기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적으로 게으른 태도다.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합리적 논거를 실제로 자주 제시한다.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논거를 단순히 무시할 때 기억해야 할 세 단계가 있다.

첫째,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논증하라. 다음은 낙태를 반대하는 논증을 전체적으로 잘 요약한 내용이다.

‘무고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낙태는 무고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죽인다. 따라서 낙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낙태 반대 논증을 이처럼 명확하게 진술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거나 무

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당신이 핵심 메시지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프로라이프 입장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진술함으로써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을 변호하라. 낙태에 반대하는 주장을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을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배아는 독립적이고 살아 있는 온전한 인간 존재이다. 둘째, 크기, 발달 단계, 환경, 의존성의 차이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낙태 반대 입장을 이렇게 옹호할 수 있다.

“나는 프로라이프다. 무고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발생학은 발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당신과 내가 이미 독립적이고, 살아 있으며,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한다. 배아는 다른 인간의 일부가 아니다. 손등의 피부 세포와 같은 것이 아니다. 배아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뿐 이미

살아 있는 전체적인 인간 가족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과거의 배아 단계에 있었던 당신과 나, 그리고 오늘의 성인인 우리 사이에는 당시 우리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크기, 발달 수준, 환경, 의존성의 차이는 그때는 죽여도 되고 지금은 죽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셋째, 추가 논의를 위한 규칙을 세우라. 프로라이프 주장이 제시된 이후에는 여기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 이 논거를 단순히 종교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회피일 뿐이다. 그리고 회피와 반박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도 된다. 논거는 참이거나 거짓이고,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 논거를 종교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핵심을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 만약 어떤 논거가 증거나 반대 논거로 반박될 수 있다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계속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은 성립한 것이고, 상대방은 곱씹어

볼 만한 많은 논거를 받은 것이다.

프로라이프 진영은 자기들의 종교적 견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하던 기독교인들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역시 종교적 신앙과 믿음에 호소하곤 했다. 그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것이다. 더 정의롭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하며, 동료 시민들을 설득해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 문제와 관련해 적대적인 자리에서 당신의 프로라이프 입장을 옹호해야 할 때, 이 세 단계를 기억하라.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논증하라.”

“프로라이프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그 주장을 옹호하라.”

“추가적인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규칙을 세우라.”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영역주권

영역주권을 세우는 신앙,
내 삶의 영역에서 성경으로 살기

정상원 집사
(강남C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어 사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면서도 벗어나기 어려운 익숙한 오류다. 교회에서는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가정과 직장, 학교와 여러 사회 활동의 자리에서는 그곳을 지배하는 논리만을 따르는

이원화된 삶을 살게 된다. 특히 개인의 재량이 제한되는 직장과 특정 공동체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그 영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해지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창조하셨다. 그 각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고유한 질서가 있다.

문제는 모든 영역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운영되면서 그 내부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영성을 해치는 전제가 함께 작동한다는 데 있다. 내가 종사하는 사회복지직만 살펴봐도 이 분야가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 전문적 윤리 같은 핵심 개념들은 모두 인간 자체의 가능성에서 출발한 언어로 설명됐다. 그 배후에 있는 창조주와 그분이 세우신 질서는 논의에서 지워져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영역의 전문성에 정통하면서도, 그 안에

감춰진 비성경적 전제를 읽어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질서에 가까이 다가갔으나 끝내 그 주권의 확장으로는 나아가지 못한 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칼 로저스(Carl Rogers)라는 학자가 있다. 그는 엄격하고 비사교적인 신앙 전통 속에서 자라며 한때 사역자를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며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인간이라도 본래 자신의 삶을 성장시킬 힘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실현을 이를 성향을 지닌 존재라고 믿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재조명한 이 이론은 전문가가 내담자보다 그들의 삶을 더 잘 안다는 전제를 뒤엎는 ‘내담자 중심 치료’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가 과도한 권위로 타인의 삶을 지시하고 침해해 온 관행을 바로잡는 데 공헌했다. 이 이론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각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년기의 믿음의 흔적 때문이었을까. 말년의 그는 이론에 영적 존재와의 조우 등 신비적 요소를 끌어들이면서 초기 이론의 핵심 개념을 스스로 흐리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가 인간 존귀함의 근거를 성경적 믿음에 두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반영되어 있으나, 그 질서를 누가 가장 잘 실현해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지는 신앙

심의 차원만으로 가능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 두신 창조와 운영의 질서는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다 이해하고 통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 정도가 세상에서의 쓰임과 비례해야 한다는 도식적 사고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노력할 것이 없다는 체념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각자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만난 젊은 교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을 묵상해 그 핵심 가치와 개념을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소통되는 언어로 재정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어 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답하셨다.

그는 아직 믿음이 없고,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의 내용과 권위를 그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필요에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 해결의 단서와 목표 방향을 성경에서 찾아 그 분야의 언어와 실천으로 풀어내는 것이 매일의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교수님은 인간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 전인적 개입 같은 이 분야의 표준 용어를 세속적 정의에 머물게 두지 않고,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라는 성경의 큰 틀 안에서 재개념화하였다. 전문직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본래 가리키던 더 깊은 진실(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는 사실, 그 삶에는 회복되어야 할 본래의 선함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새로운 교재를 직접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공식 문서나 실천 현장에서 그 분야가 공유하는 중립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했다. 전문성과 소통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실천의 동기와 방향을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 내는 양방향의 충실함이 바로 그가 보여준 답이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각자의 가정을 포함해 학교, 회사와 연구실, 상담실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같은 씨름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논리와 말씀 사이에서 밤을 지새우듯 고민해 온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 한편에 거룩한 사명감을 안고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 사명감은 전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자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함께하시기를 소망한다. 이 시대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기를 기도한다.

새로운 40년의 길, 하이브리드교회

하이브리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복음의 양면성’ 제시
목회자와 리더십, 성도와 선교사, 협력기관 등 3,457명 참석



온누리교회 새로운 40년의 첫해 열린 ‘2026 온누리사역축제(OMC)’가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개막한 2026 온누리사역축제(OMC)는 ‘하이브리드 교회’를 주제로 주제강의, 선택강의, 저녁집회가 이어졌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리더십, 성도와 선교사, 협력 기관 리더십 등 3,457명이 참석했다.

2026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이재훈 위임목사는 온누리교회 새로운 40년의 길을 선포했다. ‘하이브리드 교회’가 바로 그것. 이목사는 “복음에는 교회가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양면이 있다”면서 온누리교회가 하이브

리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복음의 양면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 ‘관계와 제도’, ‘은혜와 진리’, ‘진밀함과 개방성’, ‘사랑과 정의’, ‘돌봄과 훈련’, ‘거룩과 화평’,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교제와 선교’,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시간을 여는 복음’을 주제로 상반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거듭 강조했다.

2026 온누리사역축제(OMC)는 매일 오전 주제 강의, 오후 선택 강의, 저녁 오픈 집회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주제 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했다. 오후 선택 강의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부속실에서 사역본부와 협력 기관

별 강의를 이어졌다. 박종길 목사 ‘하이브리드 교회와 공동체’, 노치형 목사 ‘목회적 리더십을 세우는 목회행정 이야기’, 이기훈 목사 ‘돌봄과 훈련으로 하이브리드 교회를 실현하는 일대일제자양육’, 한은경 권사 ‘가정 사역과 어머니학교’, 신현일 장로 ‘부부의 대화와 성’, 전진국 장로 ‘왜 지금 힐링보이스인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저녁 오픈 집회에서는 김우준 목사 ‘모든 것의 시작’ (골 2:6~7), 김다위 목사 ‘생기야, 사랑에서부터 오라!’ (렘 37:1~14), 이재훈 위임목사 ‘멈출 수 없는 하이브리드 교회’ (행 28:16~31) 설교, 서빙고 대청연합팀, 양재 대청연합

팀, 온누리연합성가대 특순, 기도회 등이 이어졌다.

집회 기간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와 공원, 이천만광장, 풋살장에서는 특별 부스를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버스킹, AI 사진관, 셀프포토존, 게임존 등 특별 부스를 오가며 교제했다.

백소라 집사(인천온누리교회)는 “그동안 신앙에서 비어 있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이 온누리사역축제(OMC)에 참가하면서 하나로 껴지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기자

온누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40년

본질은 지키고, 자연스럽게 섞이는 교회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제시하신 ‘하이브리드 교회’는 이 시대에 아주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서 본질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화가 심해져 모이는 일 자체를 번거로워하는 경향도 커졌습니다. 개인화를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교회의 높은 울타리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데, 그 경계가 너무 단단

합니다. 다문화가정과 K-컬처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만큼, 그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미래 리더들, 젊은 리더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열정도 큼니다. 이 가능성을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뒷받침할지를 고민하며 끊임없이 끝까지 돕겠습니다.



주수일 팀장
(농어촌선교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고민하기에 앞서, 삶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순장으로서 순을 어떻게 이끌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돌봄과 훈련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순원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나 어려움을 살피면서도,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훈련하고 싶습니다.

교회 역시 붙들어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40년에도 선교를 향한 열정은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보여주면 아이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현공 순장
(관악금천공동체)

온누리사역축제(OMC)

하이브리드 교회

◆ 10월 13일 화요일 - 주제강의 1.

말씀과 성령 / 관계와 제도

이재훈 위임목사

말씀과 성령

1750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해임되었습니다. 배경은 성찬 참여 자격 논쟁이었습니다. 앞서 이 교회에서 목회한 솔로몬 스토더드 목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 참여 자격을 넓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흥 운동을 경험하며 성찬의 중요성을 깨달은 에드워즈가 확신이 없으면 성찬을 받을 수 없다는 엄격한 규정을 세우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해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영

혼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한 가지를 지키려다 다른 쪽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양극화된 교회에서 하이브리드 교회로 나아가려면 두 발을 두 기둥 위에 동시에 딛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기둥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두 번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빠른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바랍은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이처럼 두 번 대언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님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며, 예수님은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납니다. 이 둘은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두 손으로 함께 붙드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기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두 번 대언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관계와 제도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는 취임 설교에서 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엡 3:17)를 주제로 교회론을 설명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유기체적 이미지이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쌓는

구조물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유기적이고 관계적이며, 하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와 제도적인 구조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담을 구조와 제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직분을 세우도록 하였고, 예수님도 무리 가운데 70인, 그중에서 12제자, 그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고유한 유기체이지만, 죄 때문에 제도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관계 없는 제도만 추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 있는 관계를 부정하는 제도는 제도 자체도 무너지고,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둘을 융합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교회입니다. 열 사람마다 그들을 아는 사람을 세우고, 세운 사람을 다시 돌보며, 규정을 만들되 그 규정이 누구를 지키는지를 염두에 두는 교회입니다.

◆ 10월 13일 화요일 - 주제강의 2.

은혜와 진리 / 친밀함과 개방성

이재훈 위임목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복음의 두 날개입니다.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듯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인지를 알아야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입니다. 진리를 좇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좇으면 세상은 구원의 소망을 잃게 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복음의 균형이 깨지고, 십자가가 가려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7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이 ‘은혜’와 ‘진리’로 연결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도 은혜와 진리가 함께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교회 역사에서 갈라졌습니다. 2세기 중반 마르키온은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루터는 은혜의 이름으로 진리를 버리는 일을 경계했습니다. 본회퍼 시대, 나치 시대 교회는 은혜를 말하면서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융합은 교회의 전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은혜를 얻은 자는

진리를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딤후 2:11~12). 은혜와 진리에 대한 온누리교회의 길은 낮은 문턱과 높은 제자도입니다. 은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품으면서, 그들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를 함께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문턱을 낮춰 실패한 사람을 품으면서 그를 제자의 길로 이끌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친밀함과 개방성

친밀함이 없으면 교회는 군중이 되고, 개방성이 없으면 교회는 동호회가 됩니다. 교회를 살아 있게 하는 친밀함이 새로 온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3절에는 형제 사랑과 낮은 사람 사랑을 함께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레위기> 19장 18절, 34절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 담장에는 이방인이 넘어오면 죽는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려던 친밀함이 남을 막는 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밀함을 나눈 무리가 있었지만, 바깥을 향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열려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한계를 책망합니다(갈 2:14).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친밀함에 갇힌 교회는 결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민족 사회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단일민족을 강조합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친밀함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이방인의 뜰을 비워 두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그 친밀함으로 새로 온 사람이 설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아직 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을 위해 빈자리를 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 10월 13일 화요일 - 저녁 강의

모든 것의 시작(골 2:6~7)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삶에서 걱정과 근심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평강과 기쁨보다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을 본문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7절은 “참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며, 세워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

장 31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9절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고후 4:5)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을 만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삶에 적용하지 않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삶의 모

든 소유권, 경영권, 결정권을 전부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분적인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는 선행이나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리겠다는 마음의 결단, 곧 회개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권리가 새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상식적인 이치입니다.

신학생 시절 저는 중증 근무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안에 전신이 마비돼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는 선고였습니다. 병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 돈이 더해져야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욥기> 1장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몸과 생명은 단 한 번도 제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주인 행세를 해 온 것을 회개했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걱정에서 시달린 이유는 제가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감사함으로 받고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던 병이 나아 두 다리로 걸어 병원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놓친 채 여기까지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혹 시라도 여러분이 결정권을 거머쥐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살기를 바랍니다.

온누리사역축제(OMC)

하이브리드 교회

◆ 10월 14일 수요일 - 주제강의 1.

사랑과 정의 / 돌봄과 훈련

이재훈 위임목사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는 쪼갬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 양립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사랑이 정의로운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가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기에 그 안의 죄와 불의를 그냥 두지 않고 태워 없앱니다. 사랑이 불의를 바로잡는 모습이 곧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랑과 정의는 ‘한 불의 두 얼굴’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십자가를 불필요

한 것으로 만들고, 사랑 없는 정의는 십자가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듭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두 단어로 나옵니다. ‘미쉬파트’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바로잡는 정의이고, ‘체다카’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관계적 의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는데, 그 정의는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침묵’과 ‘편승’이라는 두 유혹을 받습니다. 침묵은 불의를 보고도 사랑만 말하는 것이고, 편승은 사랑 없이 정의만 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두 팔은 사랑이 벌렸고, 정의가 못 박았습니

다. 못을 보지 않으려는 교회는 정의를 잃고, 벌린 팔을 보지 않으려는 교회는 사랑을 잃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상처를 싸매며 길을 안전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먼저 돌보며 공평의 기준을 지키고, 강한 자의 회개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돌봄과 훈련

돌봄과 훈련은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봄은 지금의 형편에 마음을 두고 부모가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고, 훈련은 장차 되어야 할 모습에 마음을 두고 짐을 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돌봄만 있는 교회는 따뜻하지만 성도가 자라지 않아서 영적 아기들이 가득하고, 훈련만 있는 교회는 온기가 없습니다. 바울은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유모(7절)와 아버지

(11절)에 함께 비유했습니다. 유모는 조건 없이 받아주고, 아버지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성경은 돌봄과 훈련을 함께 보여줍니다. <시편> 23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한 도구가 때로는 양을 이끌고, 때로는 엉뚱한 길을 가는 양을 돌아오게 하는 두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 34장 16절은 잃은 자를 찾고 싸매는 돌봄과 공의대로 먹이는 훈련을 한 절에 담았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돌봄),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킨 뒤에는 회복시켜 양을 맡기셨습니다(훈련).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예배에 돌봄만 있으면 몇먹이가 많아져 순장이 탈진하고, 훈련된 순원이 있어야 순장도 힘을 얻습니다. 한 영혼을 돌보며 함께 훈련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함께 든 목자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 10월 14일 수요일 - 주제강의 2.

거룩과 화평 /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이재훈 위임목사

거룩과 화평

‘거룩’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별해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구별된 백성이 죄에서 떠나는 삶을 뜻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지 않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산에 오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산에 닿은 짐승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으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25:8). 하나님의 거룩은 처음부터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

다. 예수님이 받으신 가장 큰 비난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레위기>의 정결 규정대로 부정한 자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된다는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나병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린 것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목적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으로 전염시켜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는 화평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산에 이르는 죄인들의 축제 공동체’입니다. 거룩에 기초한 화평

이 있어야 진정한 축제가 일어납니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미국의 선교학자 랄프 윈터 박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두 구조>라는 논문에서 교회 안에 두 공동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속하는 ‘모달리티’와 모달리티의 일원을 넘어 성인으로서 두 번째 결단에 속하는 ‘소달리티’입니다. 교회의 갈등 가운데 하나는 이 두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두 구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공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두 교회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인 모달리티였지만, “땀방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

선교팀이 소달리티입니다. 소달리티를 통해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모달리티가 되며, 그 모달리티에서 또 소달리티가 나오는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교회와 선교회의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통합형’입니다. ‘통합형’은 교회 안에 선교회가 있되,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융합을 통해 자체 파송 구조를 가지는 형태입니다.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이상적입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어떤 영역이든 소달리티적인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낱고, 보내고, 다시 맞아들이는 교회입니다. 믿는 순간 누구나 가족으로 품으면서 신앙이 자란 사람을 두 번째 결단으로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와 금식 가운데 사람을 구별해 보내며 돌아온 사람의 보고를 함께 듣는 교회입니다.

◆ 10월 14일 수요일 - 저녁 강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오라!(겔 37:1~14)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뼈가 심히 많고 완전히 말라버린 골짜기를 보여 주셨습니다(2절). 9절은 이 뼈들을 ‘죽임을 당한 사람’, 원문으로는 ‘칼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11절). 그들은 소망이 사라졌다고 고백했고, 그들의 삶도 뼈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3절). 하나님의 처방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귀도 눈도 없는 뼈

들에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4절).

에스겔이 순종해 말씀을 대언하자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7절). 여기서 ‘움직임’은 원문으로 ‘라아쉬’인데,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골짜기가 지진처럼 흔들리고, 흠여졌던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연결되며,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흠여졌던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는 ‘구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던 것에 구조가 잡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형체를 이루셨던 것처럼,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했을 때도 흠여졌던 것들이 연결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체는 갖추었지만,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8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하십니다(9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은 살아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10절).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 그분을 부인하고 흠여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0:22).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있는 리더십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으키신 것은 ‘극히 큰 군대’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군대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백성 안에 두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고국 땅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끝은 군대의 규모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목적입니다.

온누리사역축제(OMC)

하이브리드 교회

◆ 10월 15일 목요일 - 주제강의 1.

교제와 선교 /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

이재훈 위임목사

교제와 선교

교제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삶을 나누는 일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입니다. 교제는 내부 지향적이고, 선교는 외부 지향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서로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교제’와 ‘선교’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창 12:2~3). 복을 받는 것은 교제의 영역이고, 복이 되는 것은 선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복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교제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됩니다. 반대로 받은 복

이 없다면 복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된 뒤에 교제와 선교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사를마누는 785년 세례를 거부하는 작센 사람을 사형에 처했고, 1099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십자군은 도시 주민을 학살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개종시키면 된다는 잘못된 선교관 때문입니다. 선교의 성공 사례라고 불렸던 르완다에서는 1994년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해되는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교제를 온전히 담지 못했기 때문에 길으로는 선교로 복음화되었다고 하지만, 속은 여전히 복음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제와 선교를 둘 다 잡기 위해서는 선교가 앞서가야 합니다. 교제가 앞서가면 선교는 따

라가지 못합니다. 사명으로 하나 된 교제는 탄해집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땅끝의 형제를 자기 손의 일원으로 여기고, 늘 땅끝을 위한 빈 의자를 두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

교회는 오랫동안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 갈등은 아직도 끝나지 않을만큼 양극화된 관점입니다.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 주심을 전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사회참여는 이웃과 사회를 향한 섬김 전체를 말합니다. 1973년 세계선교와전도위원회가 연 ‘오늘의 구원’ 대회는 복음을 잃은 사례입니다. 사

회를 등진 ‘예수운동’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잔대회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를 배타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에 참회하며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인 의무임을 확인합니다. 1982년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행동이 전도의 결과이며, 전도로 가는 다리이고, 무엇보다 전도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프랑스는 피 흘리는 혁명을 겪었는데, 영국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이는 부흥운동이 주일학교와 무료 진료소, 감옥 개혁 등으로 이어지면서 영국을 안에서 서부터 바깥으로 넓혔기 때문입니다. 사회참여가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사회 속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도 사회를 바꾸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사회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 10월 15일 목요일 - 주제강의 2.

시간을 여는 복음

이재훈 위임목사

온누리교회는 토요일과 일요일, 두 번의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병원, 공항처럼 일요일에도 멈출 수 없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주일성수 못하는 성도’라는 죄책감을 안고 있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온라인예배가 예배당예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토요일 예배에도 주일 공예배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지 묻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며, 재림교와는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일요일 예배를 없애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합당한 목회적 목적이 있고, 교회가 신중히 결정한다면, 주일 공예배를 토요일로 넓히는 것은 성경과

역사가 교회에 남겨 준 자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뿌리가 다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출애굽, 시내산 언약에 뿌리를 둔 ‘쉼의 날’이고, ‘주일’은 부활에 뿌리를 둔 ‘회집의 날’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긴 것은 시내산 언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덧붙인 규정이었습니 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같습니다. 휴일이 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동트기 전, 일하러 가기 전에 모였습니다.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된 것은 321년 콘스탄티누스의 칙령 때문이니, 이를 바꾼 것은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주일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는 등식은 16세기 말 청교도주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칼뱅은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해 모여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네바는 수요일을 주일과 같은 공예배의 날로 지켰는데, 그 도시의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이 쉬는 날이 된 오늘날 교회가 같은 원리로 토요일을 택한다면 제네바의 원리를 잇는 것입니다. 관행은 시대의 것이고, 원리는 전통의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제4계명)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과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쉼의 원리는 유지되지만, 어느 날인지를 정하는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두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첫째, ‘주일은 날짜를 바꾼 안식일이다’라고 하면 일곱째 날의 규정이 일요일로 그대로 옮겨 옵니다. 그러면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적은 금지 목록이 생기고, 일요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고칠 수 없는 율법이 됩니다. 둘째, ‘주일은 안식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면 제4계명이 우리 삶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문서가 되고, 주일에 모이는 일도 각자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의 전통과 우선성은 지키되, 일요일에 일해야 하는 성도들과 병약한 분들을 위해 토요일에 같은 공예배를 더하는 것은 ‘자유로운 준수’에 속합니다. 한 회집을 ‘주일 예배’라 부를 자격은 요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토요일 회집은 제네바가 수요일에, 이슬람권의 교회들이 금요일에, 사도 시대의 교회가 동트기 전에 했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문을 잠그지 않았고, 역사가 그 길을 열어 보았으며, 신앙 고백들이 그 자유를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여는 복음’입니다.

◆ 10월 15일 목요일 - 저녁 강의

멈출 수 없는 하이브리드 교회(행 28:16~31)

이재훈 위임목사

‘하이브리드’는 서로 다른 영역, 서로 다른 기능이 제3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하이브리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베드로의 말씀 증거였습니다. 어부인 줄만 알았던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관통하며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

났고, 구약과 연결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만 파면 지식에 파묻히고, 직통 계시만을 구하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진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함께 붙잡을 때 진정한 믿음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교회였습니다.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지만, 야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이에게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두려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리는 간수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풀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정의를 따졌습니다. 돌봄과 훈련도 함께 나타납니다. 바울은 예배

소 장로들에게 “눈물과 혼계로 양육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눈물은 돌봄이고, 혼계는 훈련입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되돌아간 일로 훈련 중심의 바울과 돌봄 중심의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마가는 바나바의 돌봄으로 회복되어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말씀과 성령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군인 한 명의 감시를 받으며 만 2년 동안 세 들어 살던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을 가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세력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슬은 바울을 묶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매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슬이 복음 전파의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입니다.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핍박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일터, 재정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 믿고 담대하게 붙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슬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결국 그 사슬도 풀려 해치실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 지내던 그 셋집이 우리 삶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를 앞두고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를 따르라!”

AI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

김영욱 장로
(미래성장위원회 위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

로 접하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일상 깊숙이 들어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손가락 하나로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도전과 위기를 던져주고 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날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흥미를 끄는 것만 끊임없이 보여준다. AI 시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와 편리한 답변에 의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없이 받아들이기 쉽다. AI는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주체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과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인공지능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물론 AI는 자료를 검색하고,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며, 배경지식을 탐색하는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I가 제시하는 답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거나, 영적인 분별과 신앙적 결정을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AI는 말씀을 찾고, 문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인간이 만든 것이고, 오류를 범한다. 그러므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에는 더욱 분명한 영적 기준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

2천 년 전 예수님 시대와 AI가 일상화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 시대와 기술은 변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에게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 AI 시대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낫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명확하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선포한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파멸과 방황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은혜로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타락한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다.

첫째,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사역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려 주셨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을 얻었다.

둘째,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이들을 부르셔서 곁에 두셨다. 삶의 본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양육하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할 믿음의 제자들로 세우셨다.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과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지상의 가장 위대하고 시급한 사명을 맡기셨다. 예수님이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6-4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셨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당연한 삶의 고백이자 사명이다.

둘째, “가서 제자를 삼고 양육하라”는 사명이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Disciple)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 삼는 자(Disciple Maker)가 되라는 뜻이다. 이는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며, 무너진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양육의 책임을 맡기신 예수님의 사랑 어린 명령과도 이어진다.

참된 제자의 흔적과 표시

우리는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는 성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며 ‘영적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은 다음의 네 가지 분명한 흔적과 표시가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말씀과 기도를 통한 동행)를 나눈다.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큐티(QT)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성령님이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나”(렘 15:16)라는 고백처럼,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둘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영적 훈련)을 산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셨다. 제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17)는 말씀대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

에 순종한다.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딤후 2:3-4)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는다. 또한 ‘제자(Disciple)’와 ‘훈련(Discipline)’의 어원이 같듯, 영적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추구한다(고전 9:24-25).

셋째,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삶(전도와 양육)을 산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의 목숨을 다함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다. 더 나아가 일대일제자양육(마 28:19-20)에 힘쓰고, 의무감이 아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동기 삼는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살전 2:8)는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영혼을 돌본다.

넷째, 하나님과 이웃 사랑(율법의 완성)을 실천한다. 제자의 모든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사랑’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처럼, 관념적인 사랑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사랑을 베푸는 것을 실천한다.

우리의 삶에 이 네 가지 ‘제자의 표시’가 얼마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나를 쳐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훈련, 전도와 양육에 헌신하는 삶,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즉문즉답을 좋아하는 조급한 시대를 살고 있다. AI는 우리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해 주는 편리한 도구이다. 우리의 고민에 답을 제시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넬 수 있다. 그러나 AI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 줄 수 없고, 아픔을 함께 고민할 수 없으며,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없다. AI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불변의 진리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삶의 흔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성도이다.

올해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nnuri Future & Family Celebration, OFFC)’가 ‘AI 시대, 교회의 책무와 제자도의 실천’을 주제로 10월 31일(토)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개최된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 성인과 청년, 모든 세대가 모여 제자도를 새롭게 세우기를 기도한다.

문의: 02-3215-3234

‘모이는 공동체’에서 ‘흠어지는 공동체’로!

현장 순예배로 되살리는 ‘1다락방 1사역’



김근철 팀장
(1다락방 1사역팀장)

오늘날 한국 교회 순 사역의 큰 고민 중 하나가 교제의 평탄함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 가는 생태계라는 점이다. 순예배가 단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공유하는 ‘내부적 교제’에 머무를 때, 순원들은 점차 영적 타성에 젖어 들기 쉽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순(다락방)의 본래 목적인 ‘소그룹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이 바로 ‘1다락방 1사역 연계 현장 순예배’ (이하 현장 순예배)다. 다락방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독특한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고, 이를 지역사회나 소외된 곳,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인 현장과 1:1로 연계해서 직접 발로 뛰는 순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는 모이는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흠어지는 공동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장 순예배 의미와 방법

기존 순예배가 주로 교회 내부나 순원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면, 현장 순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구체적인 현장으로 이동한다. 지역 봉사센터, 보육원, 장애인 시설, 독거 노인 가정, 도시 미자립교회,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쉼터 등 다락방이 품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거룩한 숨소리와 감격이 있다. 현장에서 타인의 아픔을 목도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과 기도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간절함을 선사한다. 예배가 관념이 아닌 ‘행동하는 영성’으로 체현되는 순간이다.

현장에 간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예배가 살아 있으려면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봉사 활동을 과업처럼 처리하는 것은 다락방을 또 하나의 사회봉사 단체로 만들 위험이 있다. 핵심은 ‘예배를 기반으로 한 사역’이다. 1다락방 1사역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지역 교회, 지자체와 긴밀히 연합해 그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함께 열매를 맺어 가는 동역의 과정이다.

사역 전후로 드리는 순예배를 통해 순원들은 사역의 이유가 인간적인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확인한다. 함께 땀 흘리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현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순원 간의 영적 유대감이 비약적으로 깊어진다. 나누기만 하던 교제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동역자’로서의 강렬한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동역은 모든 순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다락방에는 다양한 은사와 성향의 순원들이 존재한다. 말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행동

특별안내 | 1다락방 1사역

우리 다락방, 이렇게 시작하세요

- 1 사역지 연결**
사회선교본부가 다락방에 맞는 사역지를 소개하고 연결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사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2 월 1회 현장 순예배**
다락방이 함께 사역지를 찾아 월 1회 이상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현장을 위한 중보와 섬김이 시작됩니다.
- 3 관계 형성 및 작은 섬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고, 식사 준비, 말벗, 활동 보조 등 작은 섬김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 4 필요할 때 ‘경청의 식탁’**
사역을 시작하고 싶지만 막막하다면 ‘경청의 식탁’에 참여해 보세요. 사역 안내와 현장 이야기, 사역지 연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작은 실천, 세상을 바꾸는 1다락방 1사역

사역 유형별 정리와 참여 방법

지금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지 연계 안내

- 제이홀** (고아 돌봄)
- 이웃사랑** (홀몸 어르신 방문 · 돌봄)
- 한터공동체** (식사봉사)
- 서울역 희망공동체** (쪽방 주민 돌봄 · 말벗 · 생활지원)
- 오병이어** (어르신 예배 · 복음전도 · 양육)

따뜻한 손길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 결연형

- 다문화사역팀** (교민의 청소년 학습 · 한국어)
- 누리볼 쉼터** (학습지원)
- 가람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 피해가정 멘토링** (10가구 대상 · 지속형)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역입니다.

프로젝트형

- 문화체험 이음** (월 2회 · 10 ~ 15명)
- 도배 · 집수리** (연 1 ~ 2회 · 다수)
- 경제정의팀** (재정 세미나 · 상담)

필요에 따라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사역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1 사역지 살펴보기**
교회의 다양한 사역지 목록을 보고, 우리 다락방에 맞는 사역지를 살펴봅니다.
- 2 다락방과 매칭하기**
우리 다락방의 관심 있는 사역지를 함께 상의하고 매칭합니다.
- 3 작은 실천 시작하기**
기도하며 계획하여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합니다.
- 4 기도하고 함께 나누기**
사역의 이야기를 지면과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공동체와 나누어 더 많은 이웃에게 확대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필요한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드리는 순예배는 매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역동성이 숨 쉬는 거룩한 현장이 될 것이다.”

과 봉사에 탁월한 이들, 행정·기획적 감각이 있는 이들, 긍휼의 마음이 깊은 이들이 있다.

사역은 돈이 아닌 ‘삶’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다락방이 예산 부족이나 전문적인 기술의 부재를 걱정한다. 사역하려면 상당한 재정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역의 본질은 반드시 많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지 않다. 다락방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가진 재능과 경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웃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 따뜻한 식사 한 끼, 진심 어린 대화와 지속적인 관심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이 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하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얼마나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함께하느냐다. 이것이 단순한 구제를 넘어서는 ‘하이터치(High-Touch)’ 선교의 방향이다.

1다락방 1사역 구조 안에서는 모든 순원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재능과 강점, 잠재력을 현장에서 발휘하며 사역을 분담할 수 있다. 이는 침묵하던 순원들을 사역의 주체로 일깨우며,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Acts29’를 함께 써 내려가는 사역자로 바로 서게 해 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이웃인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실현하게 할 것이다.

현장 순예배 위한 세 가지 지원

사역의 여정에서 ‘1다락방 1사역본부(이하 사역본부)’는 다락방이 홀로 짐을 지고 나아가

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고 곁에서 동행하는 ‘셰르파’가 되고자 한다. 높은 산을 오르려는 이들이 험한 길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셰르파처럼, 1다락방 1사역팀도 다락방이 사역의 문턱에서 느끼는 부담과 막막함을 함께 나누겠다. 사역본부는 성공적인 현장 순예배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지원한다.

첫째, ‘맞춤형 사역 매칭’을 지원한다. 다락방마다 구성원의 인원과 은사, 가용 시간, 사역 여건이 다르므로 모든 다락방에 동일한 사역을 요구하기보다 각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1:1 사역을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역본부에서는 다락방과 이웃이 1:1 관계 맺기를 하도록 핵심 사역지를 준비했다. 이 사역지들은 한 번 다녀오는 자리가 아니라, 다락방이 이웃과 오래도록 얼굴을 마주하며 신뢰를 쌓아 가는 자리다. 사역이 행사가 아닌 관계로 이어질 때 다락방은 이웃의 필요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사역도 자연스럽게 지속될 것이다.

둘째,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역본부는 공동체별 리더십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다락방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역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경청의 식탁’(Coaching & Dining)을 진행하고 있다. 사역본부는 사무실에서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락방 리더들이 있는 자리로 직접 찾아가는 한 끼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락방이 품은 온 마음과 현재의 형편, 어려움과 걱정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사역본부가 먼저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듣고, 다락방이 스스로 사역의 방

향을 찾아가도록 곁에서 돕고 있다.

셋째, ‘재정’을 지원한다. 자비량 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역 진행에 불가피하게 재정이 필요한 경우 사역본부가 지원해서 다락방의 부담을 나누고,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겠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다락방은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대신 사역본부와 함께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자비량의 정신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다락방이 재정 걱정 때문에 사역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정 지원이 지향하는 바다.

온누리교회 다락방과 순은 세상에 뿌리내려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도록 삶의 영역을 넓혀 가야 한다. ‘현장 순예배’는 단순히 모임의 장소를 바꾸거나 봉사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다락방의 체질을 ‘소비적 교제’에서 ‘생산적 사역’으로 바꾸는 본질적인 변화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이 말씀처럼, 교회가 은혜가 필요한 현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섬김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드리는 순예배는 매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숨 쉬는 거룩한 현장이 될 것이다. 현장 순예배를 통해 모든 다락방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힐링멘토’ 소향과 함께

“세상과 하나님 이어주는 브릿지(Bridge)”

힐링멘토 소향이 보이스들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

CGN이 제작한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가 대중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이유는 보이스들의 뛰어난 실력만이 아니다. 노래로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브릿지(Bridge)이기 때문이다.

내로라하는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힐링멘토 중에 소향은 이 프로그램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가 걷는 길이 곧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CCM 가수로 데뷔했지만, 대중음악 무대에 서면서 교회 밖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교회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힐링멘토 소향이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에 거는 기대와 소망을 노래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힐링멘토 소향은 자기 자신을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CCM 가수를 하다가 대중가요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그녀는 MBC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그전에는 CCM에서 활동하는 사람



으로 여겨졌다.

대중가요 무대에 서면서부터 그녀는 교회 밖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고민의 끝에서 ‘크리스천이 보듬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본 이야기를 교회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안타깝지만 교회에는 지나칠 정도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저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끌어안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노래하면서 크리스천이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힐링멘토 소향은 오늘도 교회와 하나님, 세상을 잇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노래로 세상에 전하고 있다. 교회 밖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에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 밖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

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저를 비롯한 힐링멘토들, 그리고 모든 보이스들이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의 그 아름다운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를 바라보는 대중의 따뜻한 시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분명 CCM이고, 크리스천 가수들이 출연하는 방송인데, 비기독교인들이 낯설어하지도 않고 거부감 없이 녹아들고 있다. 그녀는 바로 그것이 ‘음악의 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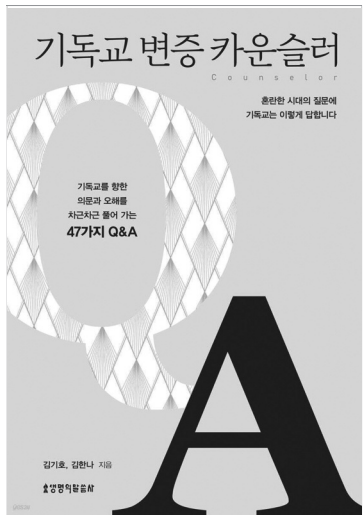
“교회를, 크리스천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음악입니다. 실력도, 사연도 워낙 좋아서 비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더 잘 여는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위로와 힐링은 물론이고, 전도와 선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노래’가 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가 그 멋진 사명을 완수해 낼 거라 믿습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기독교 OTT ‘풍당’, 오후 5시 CGN TV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새로나온 책

의심과 질문 사이에서 믿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기독교 변증 카운슬러〉

김기호, 김하나 저 | 생명의말씀사 | 26,000원

“천국이 진짜 있어? 그럼 나는 지옥 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내게 물었다. 갑

작스러운 질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버무리고 말았다. 나의 믿음에 대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신앙이 더는 당연하지 않다.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시선이 뒤따른다. 초인공지능주의까지 대두되는 시대에 “믿으면 된다”는 말만으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 분명히 알고, 왜 믿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동대학교 김기호, 김하나 교수가 펴낸 〈기독교 변증 카운슬러〉는 바로 그 근거와 설명을 돕는 책이다.

책 〈기독교 변증 카운슬러〉는 기독교를 향한 의심과 질문에 믿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기독교를 둘러싼 47가지 질문과 답변을 8개 파트에 담아 설명한다. 기독교 변증을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신앙의 고민을 안고 찾아온 이들을 돕는 ‘상담’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은 이 책만의 매력이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다룬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빅뱅우주론과 6일 창조, 유신진화론, 노아의 홍수, 화석, DNA 코드, 인간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과학 시대의 도전 앞에서 창조신앙을 변증한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신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유발 하라리의 주장 등 무신론자의 항변을 차례로 짚는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핵심 물음인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인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를 살핀다.

여섯 번째 파트에서는 천국은 정말 존재하

는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는지, 임사 체험이 사후 세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본다.

일곱 번째 파트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을 변증한다.

여덟 번째 파트에서는 ‘다음세대’로 시선을 옮긴다. 탈종교 시대에 자녀들의 교과서가 왜 중요한지 등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책 〈기독교 변증 카운슬러〉는 의심과 회의를 느끼는 성도에게는 신앙을 점검하는 길잡이, 교회 밖 이웃에게는 대화의 출발점으로 건넬 만한 책이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이들에게는 든든한 준비물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각 질문 끝에 ‘토론 질문’을 실어 두어 순예배나 일대일제자양육 등 소그룹 모임의 부교재로도 쓰기 좋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3라운드 진출자 24인 확정 ... 대중가요 듀엣 미션 돌입

10월 18일(일) 방송하는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5편에서 팀 미션 결과를 발표하고, 3라운드 진출자 24인을 공개한다. 3라운드 미션은 ‘세상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한 듀엣 대결이다. 누구나 아는 대중가요를 미션곡으로 선정했고, 참가자들은 2인 1조로 총 12팀이 무대에 오른다.

3라운드 미션의 핵심은 편곡 없이 원곡 그대로의 감동을 전하고, 두 보이스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데 있다. 보이스들은 익숙한 대중가요를 자신만의 목소리로 진정성을 선보이고, 서로의 호흡과 협력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힐링멘토 송정미는 “CCM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노래”라면서 “가요 중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노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팀 미션 무대.

래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전해지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협력과 호흡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기독교

OTT ‘풍당’, 오후 5시 CGN TV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지난 4편에서 선보인 찬양곡은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차세대사역본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에 후원품 전달

차세대사역본부가 지난 10월 8일(목)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와 서울역쪽방상담소에 김과 라면 등 후원품을 전달했다. 10월 17일(토)에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속 학생들이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게 후원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김선재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이웃을 향한 작은 실천들이 청

소년들의 마음에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세대들이 나눔 실천을 통해 믿음의 삶을 이어가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연 소장(서울역쪽방상담소)은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의 귀한 나눔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전달되었다”고 인사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이와테 기도제목

- 10월 18일(일) 집회장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 10월 19일(월) 집회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 10월 20일(화)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이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 10월 21일(수) 가스펠 나이트, 리더십 포럼으로 일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 10월 22일(목) 이재훈 목사님과 통역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길
- 10월 23일(금) 러브소나타로 일본 교회가 변화되고 후속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 10월 24일(토) 이와테와 일본 전역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하게 확장되길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 선교를 위한 크리스천 코칭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순형홀

스포츠전도팀에서 ‘스포츠 선교를 위한 크리스천 코칭’을 개최한다. 10월 26일(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열린다. 교회 및 공동체 리더십, 청소년 사역자와 교사, 학부모, 체육계 종사자,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0월 25일(일)까지 전화(010-8080-6967)로 하면 된다.

스포츠선교를 위한 크리스천 코칭에서는 스포츠 현장에서 코칭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선수와 자녀 등 구성원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실제적인 코칭 방법과 활용 사례도 나눈다. 한건수 대표(국제크리스천코치협회 협회장)가 강의한다.

박현 팀장(스포츠전도팀)은 “스포츠 선교를 위한 크리스천 코칭이 스포츠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8080-6967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강남E공동체, 가을 콘서트 ‘사랑을 노래하다’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교대 사향문화관

강남E공동체가 서울교육대학교 가족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가을 콘서트 ‘사랑을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10월 31일(토) 오후 4시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열린다. 서울교육대학교 학생과 교사, 인근 지역 교사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2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가을 콘서트 ‘사랑을 노래하다’에서는 위십 엘림, 팜페라 라그넬, 퓨전국악 Allstrings, 싱어송라이터 이고은, 전자바이올린 한미나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문의: 010-2739-4433

후원: 카카오펜크 79421736168

/ 남현영 기자



제1회 온누리 공동체 탁구축제 ... 2000선교본부 스포츠선교팀이 지난 10월 5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청소년센터 체육관에서 제1회 온누리 공동체 탁구축제를 개최했다. 온누리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고, 스포츠를 활용해 공동체 간 교제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14개 공동체가 참가했다.

‘바른 성(性), 삶의 품격을 세우다’ 세미나 개최

11월 7일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

(사)행가래운동본부에서 ‘바른 성(性), 삶의 품격을 세우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7일(토)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여의대 방로 67길 21)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性)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성을 되짚고, 현대사회에서 마주하는 성과 관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본다. 송홍섭 집사(산부인과 전문의,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사) ‘성, 다시 묻다’, 박세나 집사(산부인과 전문의) ‘성, 생각하다’, 조용호 교수(전주비전대학교)

·강미향 본부장((사)행가래운동본부) ‘성에 담긴 축복의 비밀’을 주제로 강의한다.

자녀에게 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 성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 성도, 청소년과 청년을 지도하는 교사와 목회자, 상담자, 대학생, 청년, 성인 등이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11월 1일(일)까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6661-7212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10월 24일까지 아이스쿨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4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3만 원.

와이무슬림에서는 이슬람 개론, 이슬람의 예수 이해 등을 배운다. 독후감과 간증문을 제출해야 수료할 수 있다.

문의: 010-6302-3482



NGO 더멋진세상이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NGO 더멋진세상,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행안부 장관상 수상

르완다 ‘취약계층 여성 가장 자립 지원’ 사업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0월 14일(수)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NGO 더멋진세상 오정민 실장이 수상 사업의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 현장 사례 등을 발표했다.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는 기부, 의료, 복지, 자원봉사 등의 공익 활동이 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

에 끼친 구체적 성과를 조명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NGO 더멋진세상의 수상 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실시한 ‘취약계층 여성 가장 자립 지원’이다. 빈곤, 기후변화, 금융 소외 등의 위기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여성 가장과 국민 가구를 돕는 사업이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된 UPG 사업에서는 총 300가구 중 238가구가 극빈 상태에서 벗어났다. AWEE 사업에는 취약계층 여성 400명이 참여해, 르완다 평균 단위 수확량의 2배에 달하는 옥수수를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모바일 저축을 통해 약 3,500만 원의 저축이 이루어졌고, 부부 공동 교육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이해도가 41.3% 향상되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6 Acts29 비전 콘퍼런스 개최

비전교회 목회자와 관계자 80여 명 참석

2026 Acts29 비전 콘퍼런스(Acts29 Vision Conference)가 지난 10월 15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교회 목회자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Acts29 비전 콘퍼런스는 이재훈 위임목사 비전의 말씀, 임호열 장로(비전교회 협력위원) 대표기도, 박종길 목사 ‘자족하는 비전’ (빌 4:11~13) 메시지, 오범규 장로(비전교회 협력위원장) 격려의 말씀, 오민 목사(비전교회 행정담당) 권역별 목

사 비전위원 & 협력위원회 소개, 권역별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재정립해야만 미래가 있다”면서 “故 하용조 목사의 리더십, 하이브리드 교회의 은혜가 비전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박종길 목사는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비전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맞춤형 일터 세미나’ 참가자 모집

11월 10~24일 매주 화 선릉더모임센터

일하세 플러스에서 ‘일터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세미나(이하 맞춤형 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선릉더모임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1월 1일(일)까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맞춤형 일터 세미나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스

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인용 장로 ‘일터를 시작하는 성도들과의 대담’, 박기일 장로 ‘이직을 고민하는 성도들과의 대담’, 방선기 목사 ‘은퇴를 걱정하는 성도들과의 대담’을 주제로 강의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문의: 010-4949-0254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이웃과 함께 드리는 순예배

1다락방 1사역팀 ‘현장 순예배’ 도입

사회선교본부 1다락방 1사역팀이 ‘현장 순예배’를 도입한다. 각 공동체 다락방과 연계된 사역지에 한 달에 한 번 찾아가 드리는 예배다. 교회나 순원 가정에서 모이던 순예배 장소를 사역지로 옮겨서 이웃과 함께 예배와 기도, 교제와 섬김을 하는 게 특징이다.

현장 순예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첫째, 사회선교본부에 문의해 다락방에 맞는 사역지를 연결한다. 둘째, 다락방장은 현장 담당자와 일정, 참여 인원, 유의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고, 사역지에서 현장 순예배를 드린다. 셋째, 현장 순예배를 드리고 나서 담당자가 활동 내용, 사진, 현장 필요 사항 등을 기록해 사회선교본부에 제출한다.

현장 순예배 준비와 실행을 돕는 ‘경청의 식탁’을 운영한다. 1다락방 1사역팀 리더십이 공동체를 찾아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다락방의 상황과 필요를 듣고, 사역지 연결과 사역 방향, 방법 등을 안내한다(관련 기사 10면).

문의: 010-2443-4192

11월 1~15일 ‘열린순예배’

모든 공동체, 모든 순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이 11월 1일(일)부터 15일(일)까지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열린순예배는 돌봄순원(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과 전도대상자를 순예배에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場)이다.

열린순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순은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된다(하

단 QR 코드 참고). 예배 준비에 필요한 책자는 각 캠퍼스 공동체 담당 간사에게 받으면 된다. 열린순예배를 나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사역본부(02-3215-3239) 또는 전도사역본부(02-3215-3214)에 문의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생명의 삶〉앱 ‘360일 이용권’ 이벤트

10월 31일까지 이용권 구매시 40일 추가 제공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앱 ‘360일 이용권’ 이벤트를 한다. 구매 고객에게 사용 기간 40일을 추가로 제공한다. 10월 31일(토)까지 ‘360일 이용권’을 구매하면 총 400일 동안 앱을 이용할 수 있다. 30일 5,900

원, 90일 17,400원, 360일 64,800원이다. 40일 추가 혜택은 360일권에만 적용된다. 〈생명의 삶〉앱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2078-3230

durannobiz@gmail.com

젊은부부학교 61기 개강

10월 24일~11월 14일 서빙고 두란노홀

젊은부부학교 61기가 개강한다.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또는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 젊은부부학교’에서 하면 된다. 결혼 12년 차 이하 부부가 대상이다. 선착순 40가정을 모집한다. 회비는 가정당 20만 원(식사 포함).

젊은부부학교에서는 이현주 교수(연세대 상담교정학) ‘우리는 왜 이

렇게 다를까?’, 정희성 목사(YWAM 내적지유) ‘내 마음의 뿌리, 우리 관계의 시작’,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사랑연구소) ‘부부 대화·소통 실습’,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격려와 메시지, 이찬우 목사(젊은부부학교 담당) ‘하나님&축복의 가정’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3714-2509(남편), 010-4892-2661(아내)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서빙고 큐티스쿨 17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31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서빙고 큐티스쿨 179기는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지하 2층)에서 진행된다. 양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7131-1284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신규 학생 모집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eoul Providence School)에서 2027년 봄학기 신규 학생을 모집한다. 원서는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seoulprovidence.org)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5~9학년, 접수 마감은 10월 26일(월)이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국제대안학교다.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에 있다.

문의: 02-792-0927

‘예술로 잇는 우리’

11월 14일까지 사랑홀갤러리



2026.10.10.(토) - 2026.11.14.(토)
온누리교회 사랑홀갤러리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갤러리(신관 1층)에서 전시회 ‘예술로 잇는 우리’를 11월 14일(토)까지 개최한다. 영락주간보호센터 소속 공성준, 공성호, 권사무엘, 김정민, 김정식, 손정은, 오지현, 유다은, 이현규, 장종원, 최백호 작가가 참여했다.

문의: 02-2280-0278

/ 남현영 기자

서빙고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3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장소: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재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초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초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정진모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

수원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팡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 4부 14:0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10:00, 12:00 사이닝홀 / 유아부 10:00, 12:00 누리홀 / 유치부 10:00, 12:00 꿈아이홀 / 유년부 10:00, 12:00 드림홀 / 초등부 10:00, 12:00 기쁨홀 / 꿈팡3부 14:00 드림홀 / 소년부 10:00, 12:00 믿음홀 / 파워웨이브 8:00, 10:00, 12:0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2:0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

강동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용인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로제타홀(2층) / 고등부 10:00 로제타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

하나님은

이름 없는 족대들을 기억하신다!

그리운 하용조 목사님 곁에서 듣고 배운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리더십,
공동체를 살리는 섬김의 길.

마음에 남은 그 한마디,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는 지혜.

자신을 녹여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섬김의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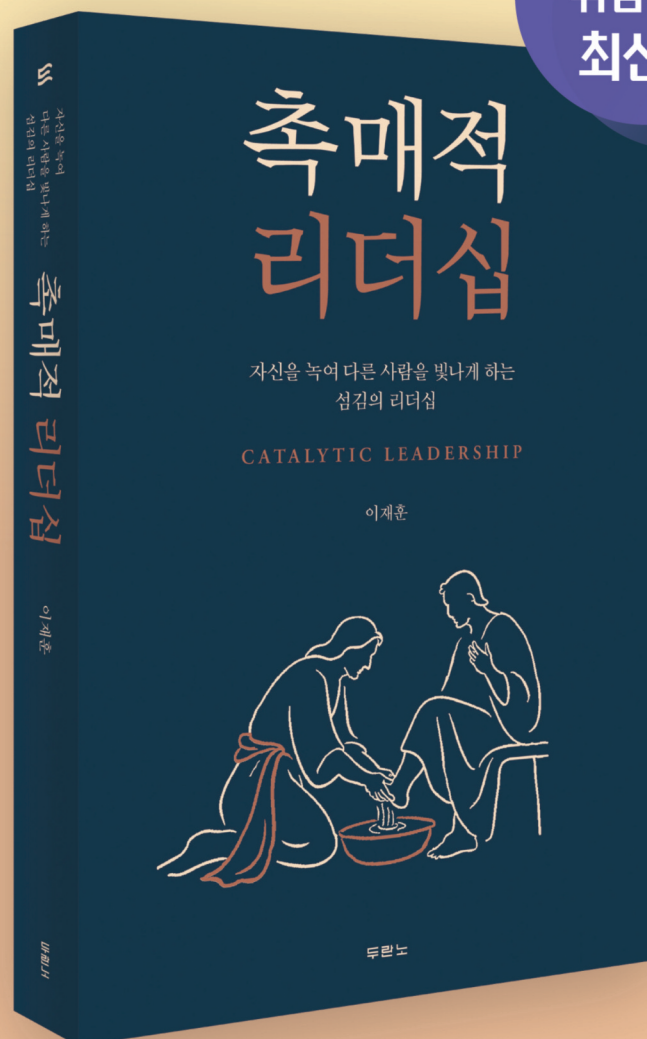
촉매적 리더십

CATALYTIC LEADERSHIP

도서 바로 구매하기
서빙고 북스토어



이재훈
위임목사
최신간



두란노